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 우리 주류 수출을 위해서



▲ Russian Vodka



▲ 구소련 절주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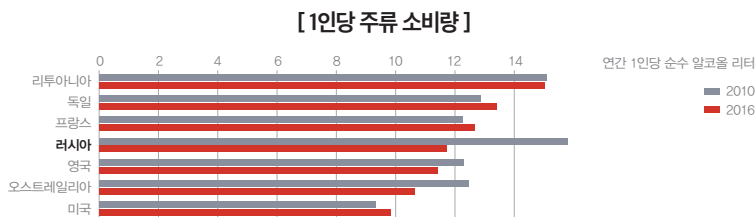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

‘러시아’하면 ‘보드카’, ‘보드카’하면 ‘러시아’, 마치 고유명사처럼 짝이 맞는다. 사실 기록상 보드카는 1405년 폴란드의 법원 판결문에서 최초로 등장했지만 정작 1982년 국제조정재판소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어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원조로 두고 있다. 역시 보드카의 나라는 ‘러시아’가 확실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도 변화할 때가 되었나 보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인들의 주류 소비량은 2003년 대비 43% 수준에 그쳤다. 오랫동안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러시아의 명성이 최근 들어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다.

금주를 생활화하자! (Sobriety-norm of life/Трезвость - норма жизни)

구소련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주류 판매시간을 제한하고(오후 2시~7시), 만 21세 미만은 주류 구입을 제한하는 등 반알코올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슬로건이 “금주를 생활화하자”였던 만큼 술에 취해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노력으로 1980년 중반부터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는 소비 감소를 이룬 듯 했으나 술을 구하기 곤란해진 러시아인들은 직접 밀주(Moonshine/Camoron)를 만들거나 산업용 에탄올, 신발 광택제, 살충제 등 기상천외한 수단을 이용하여 알코올을 섭취하는 등 알코올에 대한 갈증은 계속됐다. 이후 소련의 붕괴로 알코올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러시아 1인당 주류 소비량 독일, 프랑스에 이어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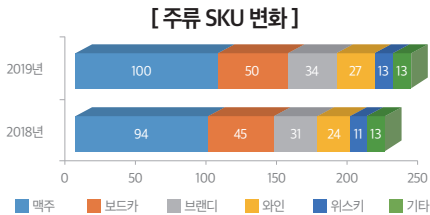
출처:

- 1 <http://mtdata.ru/u24/photo6958/20906417147-0/original.jpg>
- 2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8/1985_CPA_5687.jpg
- 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01/russian-alcohol-consumption-down-40-since-2003-who> (본문자료에 기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후, 주류 소비세 인상 및 최저 판매가 설정, 밤 11시 이후 주류판매 금지(현재 밤 10시 이후에 주류를 구입 불가), 주류의 상업적 광고/홍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프랑스, 독일보다 적은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러시아인들의 기대수명이 1990년대 초반 남성 기준 57세에서 2018년 68세로 늘었다.

선호 주종(酒種)의 변화

주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술의 종류에도 변화가 보인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러시아하면 전형적으로 독주(猛酒)인 보드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보드카가 러시아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 몇 년간 다른 종류의 주류도 러시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바로 맥주다! 맥주는 2017년 판매/소비에 있어 83%를 차지했고 연간 소비량은 인당 57리터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은 연간 0.3%로 미미하지만 2025년까지 약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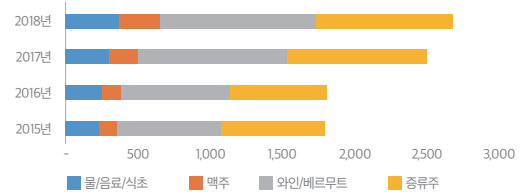
*SKU(Stock Keeping Unit)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러시아 맥주시장에 인상을 남기는데 역할이 컸다. 월드컵 6주 동안 소비량은 약 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조사된 바 있다. 러시아 주류시장 트렌드 변화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종류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조사기관 닐슨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한 상점 진

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230여 개의 주류 품목 중에서 100개는 맥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는 전년 대비 6개 품목이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 수입자료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러시아 주류시장 내 약 6.7% 가량이 외국 산 제품이 차지한다. 이중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와인/베르무트, 증류주의 비중은 종전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오히려 감소하였고, 유독 맥주의 비중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식음료 수입현황]



러시아 수입맥주 시장에서 한국 맥주는 2017년에 들어서야 20위를 달성하였고 2018년에는 18위, 2019년에는 17위로 점차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지만 2018년 기준 1위 점유국 프랑스산 수입맥 약 3억 8천만 달러 대비 약 3천만 달러로 8%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아래 사진은 블라디보스토크 내 주류판매점 및 대형마트 사진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부품목이 빠진 모습이지만 매장 내 진열되어 여러 종류의 수입 주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주류를 수입/매입, 보관, 도매/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 발급은 필수다. 알코올 15% 이상 이상의 주류의 경우, 수입 및 (도매) 판매행위를 영위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천만 루블(한화 약 1억 7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 출자업체/법인만이 가능하다. 알코올 15% 미만의 주류는 자본금 제한이 없다. 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소매판매는 불가하다. 관세는 80만 루블(한화 약 1,400만원)이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5년간 지속된다(이후 연장 요망)



▲ 노보시비르스크 수제맥주펍 '피바 팩토리'

▲ 한국산 주류 제품 진열 사진

출처: ❶ https://yandex.ru/images/search?pos=2&ncrnd=1592802260527-85010932524472838img_url=http%3A%2F%2Fgopressa.ru%2Fpressa%2Fpdf%2F1965%2Fimg_49.png&tex=1%2D0%BF%D0%8B%D0%6B%2D0%6B%20factor%26%2D0%6B%D0%BE%D0%B2%D0%BE%3D%1%81%D0%B8%D0%9B%1D%0%6B%D1%80%D0%1%81%D0%BA&pt=sim
 ❷ https://yandex.ru/images/search?pos=31&ncrnd=1592802260527-85010932524472838img_url=https%3A%2F%2Fyitimg.com%2F%2F2FfjNkMCfPv3c%2F2Fmaxresdefault.jpg&tex=1%2D0%6B%D0%6B%D0%8B%D0%B2%D0%6B%20hte%20cass%20%2D%1%81%D0%4B%D0%BC%D0%B8%1B%2D0%6B%D1%80%D0%6B%2F&pt=sim
 (출처: 남상기)

[러시아 품질인증원에서 선정한 10대 인기 맥주]



코로나 위기 속의 주류시장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러시아는 3월 30일부터 대대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단행했다. 주(州)별로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벌써 여러 차례 종료 기간을 연장하였고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 종료일은 6월 30일이다. 그러나 연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3개월 동안 휴가(休暇)가 아니고 자가(自家)에서 격리(隔離)하는 것이다. 집에서 업무를 봐야하고 취식을 해야하며, 자녀라도 있다면 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통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다. 술꾼이 아니더라도 술한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 중 러시아 내 주류 소비량은 전년대비 5% 증가, 지난 4월 한달간 보드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은 지난 4월 초부터 오후 6시 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덕분(에?) 이른바 만취인들이 60% 가량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7월 초까지 유효하다. 이외에도 케메로보주(州), 투바 자치주, 카렐리아 자치주, 야쿠치아 자치주, 바쉬키르 주, 페름주 등 지역에서 주류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판매량은 증가하였다.

주류 소비량이 증가한데에 소비패턴의 변화도 눈에 띈다. 소비자들은 같은 독주를 사더라도 대용량 제품을 선택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1리터 이상 독주 판매가 지난해 대비 19% 증가하였고 더

불어 보관이 용이하고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며 구입 편리한 대용량 병 제품의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용량 제품의 판매가 26%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자가격리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았으니 HoReCa 판매도 중단되었다. 국경이 닫혔으니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기회도 사라졌다. 오로지 직접 상점에 가서 주류를 사서 집에 돌아와야 한다. 여기에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다. 그러니 가능한 독하고 편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제품에 손길이 더 많이 가는 현상이 이해도 된다.

Key Point

러시아인들의 주류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선호하는 주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가격리 조치가 길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의 추세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격리 조치가 종료되고 국민 모두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이전의 추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독주보다는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약주(藥酒)로서의 주류 소비패턴으로 돌아갈 것임에 따라 러시아 맥주시장은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벨기에 국제식음료품질평가(ITQ)에서 주최한 '2020국제식음료품질평가'에서 우수 미각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과거 개성 없는 맛으로 혹평받던 카스가 유럽의 맥주 강국 벨기에에서 인정받으며 세계에서 통용되는 맛을 지닌 맥주로 거듭난 것이다. 최근 몇 년이 러시아 시장에 한국맥주를 소개하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독주보다는 맥주의 소비가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잠재적인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❶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01/russian-alcohol-consumption-down-40-since-2003-who> ❷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disease-prevention/alcohol-use/news/news/2019/10/alcohol-related-deaths-drop-in-russian-federation-due-to-strict-alcohol-control-measures-new-report-says> ❸ <https://www.world-food.ru/Articles/russia-alcohol-market-what-russians-are-drink> ❹ <https://yandex.ru/turbo/s/argumentu.ru/society/2020/06/670049> ❺ <https://yandex.ru/turbo/s/profbeer.ru/beer/import-piva-v-rossiyu-v-2019-godu-vyros-na-174/> ❻ <http://www.foodmarket.spb.ru/eng/current.php?article=1726> ❼ <https://marketing.rbc.ru/articles/11007/> ❽ <https://zen-top.ru/top-luchshih-marok-piva/> ❾ <https://www.vesti.ru/doc.html?id=3027491> ❿ <https://yanashla.com/luchshie-marki-piva/> 11 <https://yandex.ru/turbo/s/vinofil.ru/pivo/luchshee.html> 12 <https://sch.r/papers/mendeleev-i-vodka-sinergiya-nauki-i-mifa/> 13 <https://yandex.ru/turbo/s/profbeer.ru/analytics/nelsen-obyom-prodazh-piva-v-rossii-v-2019-godu-vyros-na-21/> 14 <https://yandex.ru/turbo/s/forbes.ru/newsroom/biznes/401291-rozrichnye-prodazhi-vina-i-vodki-vyrosli-v-period-samoizolyacii> 15 <https://www.rbc.ru/society/04/06/2020/5ed825929a79474010a7109b> 16 <https://www.krsk.kp.ru/online/news/3898210/> 17 <http://www.finanz.ru/novosti/aktsii/sem-rossijskikh-regionov-ogranichili-prodazhu-alkogolya-1029054123> 18 <http://4th.kr/View.aspx?No=867884> 19 <https://www.malyi-biznes.ru/licenziya/alkogol/>